형태 없는 것을 보고 소리 없는 것을 듣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종정 성파 대종사 작품세계 조명
100m 한지·옻칠 시리즈 등 3점
“한 장의 종이에 전체가 담겨”

청주=글 여수령 기자 · 사진 정현선 작가

전시장 전체를 한 장의 한지가 감싸고 있다. 언뜻 보기엔 그저 ‘빈 종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섬유질이 얽혀 만들어 낸 질감이 드러난다. 이 미세한 결들은 무수한 각자의 세계이자, 또 하나의 세계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 ‘성파선예전(性坡禪藝展)-명명백백(明明白白)’은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의 작품 세계를 조명한 전시다. 제목 ‘명명백백’은 일체의 꾸밈이 없이 순수한 본질 그 자체를 추구하는 철학적 선언이다.

이번 전시에는 성파 스님이 직접 전통 방식으로 뜬 폭 3m, 길이 100m에 달하는 한지작품 ‘명명백백’과 자작나무에 옻칠과 자개 가루로 장식한 ‘별들의 향연’, 한지에 옻칠 연작 ‘공에서 색으로’가 선보인다. 순백의 한지가 감싼 공간 안에 다른 두 작품을 두고, 신발을 벗고 앉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칠흑의 심연에서 자개 가루가 은은히 빛을 밝히는 작품 ‘별들의 향연’은 마치 밤하늘에 흩뿌려진 별빛 같다. 어둠과 빛이 만들어 내는 원은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다.

‘공에서 색으로’는 흰색 한지 위에 펼쳐지는 색의 향연이 공에서 색으로, 무에서 유로 이어지는 순환의 흐름을 보여 준다.

9월 10일 전시장을 찾은 성파 스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에게 작품의 의미를 직접 설명했다. 스님은 “한지는 멀리서 보면 그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오라기 같은 가닥들이 모여 거대한 한 장의 종이를 이룬다”며 “이는 곧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별들의 향연’ 앞에 마주 앉은 성파 스님과 문 전 대통령 내외.


‘성파선예전’ 전시장 전경.

이어 성파 스님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검은 옻칠 속에 반짝이는 자개 가루를 품은 ‘별들의 향연’ 앞에 마주 앉았다. 성파 스님은 “공(空)에서 색(色)으로, 없는 것[無]에서 있는 것[有]으로 이어진다. 하나도 없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며 “진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곁에 다 있기에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다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성파 스님의 설명을 들은 후 “원래 마음자리가 색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훌륭한 법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성파 스님은 “강재영 청주공예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수년 전부터 찾아와 한지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이면 좋겠다고 제안해 이번에 내놓게 됐다”며 전시장이 100m의 한지작품을 선보이는 데 적합한 공간이라는 데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재영 예술감독은 “이번 특별전은 고요한 침묵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형태가 없는 것을 보고, 소리가 없는 것을 듣는 전시”라고 소개했다.

이날 특별전을 관람한 법산 스님(전 조계종 법계위원장)은 한지작품 ‘명명백백’에 대해 “한 올 한 올의 섬유질이 연결되어 하나의 종이가 되듯, 우리 모두도 인드라망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특별전을 통해 인간과 자연,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껴 보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파 스님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청주비엔날레 본전시와 초대국가 타이전 등을 둘러봤다. 특히 지난 3월 경북 산불 때 화마를 입은 고운사의 종각과 당시 소방관들의 진화복, 진화 장면 등을 소재로 만든 ‘검은 산’ 작품이 눈길을 끌었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⑩ 불일불이

단음이 아니라 화음이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 인상 깊었다. 남북 간 적대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원효 대사의 ‘불일불이’ 철학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답했다. 남과 북은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둘도 아닌 관계라는 것이다. 남북은 흡수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며[不一], 영구히 대립하는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不二]. 상호 인정과 교류, 협력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일불이’는 대승경전 곳곳에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나가르주나의 〈중론〉 첫 품인 ‘관인연품’의 첫 구절, 여덟 가지 중도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존재는 “(새롭게) 생기지도 않고 (완전히) 소멸하지도 않으며, 항상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는


不一不二

다.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어디선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론가) 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한다.

씨앗과 열매의 관계를 보자. 씨앗이 곧 열매일 수 없고, 열매가 곧 씨앗일 수도 없다[不一]. 그러나 완전히 별개도 아니다. 수박은 씨앗을 말미암아 생겨나며, 씨앗은 수박이라는 열매를 통해 비로소 ‘수박씨’라 불린다[不二]. 생각과 말 역시 그렇다. 생각이 곧 말이 아니고, 말이 곧 생각은 아니다[不一]. 그러나 말은 생각을 반영하고, 생각은 말을 통해 드러난다[不二].

서구 철학자 들뢰즈 또한 존재를 동일성에 환원하거나 ‘단순한 다수성’으로 나누지 않았다. 그는 존재를 ‘차이의 생성’으로 이해했는데, 이는 불일불이의 연기론과 통한다.

오늘날 사회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화합을 갈망하지만, 그 ‘하나 됨’은 종종 억압과 불평등을 낳는다. 이는 “내가 절대적으로 옳으니 너도 같아야 한다”는 획일적 발상에서 비롯되며, 다름을 배제하는 전체주의로 이어진다. 〈논어〉는 이를 경계하며 “소인은 동조만 하고 조화를 추구하지 않으며(同而不和),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휩쓸리지 않는다(和而不同)”라고 했다.

불교가 말하는 하나 됨은 불일불이의 관계론이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이자 둘이고 둘이자 하나인 관계다. 이 사유는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대화와 조화를 통해 공존을 지향한다.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을 떠올려 보라. 여러 독립된 선율이 동시에 어우러져 하나의 장대한 명곡을 완성한다. 대위법은 음악의 복합성과 아름다움을 더하며, 다양한 선율을 함께 울려 풍부한 화음을 만든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한목소리’란 획일적 단음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화음이다. 그러한 화음은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관계의 법칙’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

〈화순 불암사 주지〉

빛나는 청춘들과 함께한 불교문화대전

조계종 9~10일 동국대 일원서



‘2025 불교문화대전 天上天下 You Are the Only One’이 9월 9~10일 서울 동국대 일원에서 열렸다.〈사진〉

올해 불교문화대전은 기존 공연·전시 중심의 행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국대 취업박람회 ‘2025 JOB & CAREER FESTIVAL’과 연계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 앞서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 포교부장 정무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윤재웅 동국대 총장, 정각원장 제정 스님,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성원 스님은 개회사에서 “올해 불교문화대전은 동국대 취업박람회와 연계해 학문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귀한 자리”라며 “진로와 미래를 모색하는 청년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문화대전에 마련된 강연과 불교문화 체험은 학생들에게 삶의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는 시간과 지혜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불교 역사를 통해 보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불교인문학 강연을, 10일에는 명경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선명상 강연을 진행했다.

동국대 팔정도 광장 및 법학관 일원에서는 △선명상 체험 △지화 연꽃 만들기 △출가 상담 △사찰음식·템플스테이 홍보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팔정도 광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회가 열렸다.

신중일 기자



팔정도와 간화선의 수행 방법 중도로 융합!
현대인을 위한 간화선
간화선의 수행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우리 삶을 실천과 자비로 이끌고, 이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다.
오용석 저/신국판/328쪽/값 23,000원

부처님의 교법과 수행의 핵심을 한 권에!
시골 농부의 마음공부
수행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살아가는 귀촌 농부가 그동안 공부하고 닦은 바, 즉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김일문 지음/국판/양장/256쪽/값 17,000원

동화로 읽는 보왕삼매론!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경책해야 할 10가지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보왕삼매론」을 어린이들이 생각해볼 수 있게 재미있는 동화로 각색하였다.
한상희 글, 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108쪽/값 12,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